

촛불에 불황에...강력범죄 줄고 여행객도 급감

정의와 질서 의식 높아져

광주 10월말 이후 절도·폭력 작년동기보다 16% 폭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매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광주지역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일상까지 번지면서 ‘정의와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광주에서 열린 7차례 촛불집회도 모두 사건·사고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10월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절도와 폭력 사건은 모두 1691건(절도 712건, 폭력 9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7년)보다 16%가량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3년 3073건, 2014년 2542건 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문제로 촛불집회가 전 지역에서 진행되면서 폭행이나 상해, 절도 등 크고 작은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술 자리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서를 찾는 사람들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촛불집회 문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과거에 비해 주거지역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 등 방범시설의 증가도 범죄 감소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금남로에서 열린 7차례 촛불집회에서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 기간 금남로에 모인 인파는 주최측 추산으로 지난 11월 26일 7만명, 지난 3일 16만명 등 모두 37만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촛불집회 이후 매주 수만명이 금남로 1가에서 금남로 57가 구간을 행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경찰의 교통 통제로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해외여행 대신 금남로로

지갑 닫은 소비자들...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28% 줄어

최근들어 해외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급감하면서 여행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업계는 끝모를 경기불황에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열기마저 달아오르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주말마다 수만명씩 금남로로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행객 감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10~11월 2개월간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3만4129명이던 것이 올해는 2만4658명으로 무려 27.8%(9471명)가 줄어 들었다.

이용객이 급감하다 보니 운항 편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254편이던 것이 228편으로 10.2%(26편) 감소했다.

여행업계는 무안공항 이용객 감소가 불황 탓도 있지만 뜨거운 촛불 열기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광주 조이투어의 경우 지난해 25만~30만원에 판매했던 무안~기타큐슈 항공권을 최근엔 9만8000원에 내놓고 있지만 여행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이투어 측은 여행객 감소 현상의 이유로 바닥을 친 경기와 더불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들고 있다.

가을~겨울철 여행 성수기인데도 촛불집회가 때 주말이면 금남로에서 개최되고 5만~1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여행객 감소로 이어졌고 수년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해외 여행에는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 김광식씨도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 매출과 여행객 수가 30~40% 줄어버렸다. 경기 불황도 이유지만 나라가 원체 시끄러워 여행은 생각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연탄나눔 봉사 초등생들 얼굴엔 연탄꽃...마음엔 웃음꽃



광주 남구 방림초등학교 학생들이 13일 오후 학교 인근 어려운 이웃의 가정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용구 전 광주시자문관 재판 길어질 듯

건설사 관계자 2명 불출석...증인신문 내년으로 미뤄져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구(63)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어 판결은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S건설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서류 미송달에 따른 타지 출장과 개인 가정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노 판사는 “사유를 검토한 결과 불출석에 따른 제재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며 내년 1월5일 오후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8명의 증인을, 김씨 측은 11명의 증인을 각각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남의 S건설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1억9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27일 김씨를 기소했다.또 지난 10월 말 광주시 사업 등과 관련해 2곳의 건설사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각각 1억4000여만원과 3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알선수재)와 광주 모 문화재단 일부 용역 계약 체결과정에 개입, 9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청탁 대가가 아닌 정당한 용역대급이었다”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 세번째 AI도 H5N6형 고병원성 확진

전남 6곳으로 늘어

나주에서 세 번째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H5N6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전남도내 확진 농장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전남도는 AI 저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총력대응체제에 돌입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산란을

감소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나주 남평읍 씨오리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조사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 축산당국은 이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이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만 7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국내 최대 오리산지인 나주에서는 공산면, 동강면에 이어 3번째 AI가 확진됐다.

이밖에 해남, 무안, 장성에서도 1건씩 발생해 전남 확진 건수는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축산당국은 남평 오리농장과 역학 관련성이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 농장에서 출하한 알은 해남, 나주 등 2개 부화장으로 반출됐으며 여기서 부화한 새끼 오리는 나주, 보성, 구례, 함평, 영광 등 16 농가에서 입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장에는 14일간 이동제

한 조치도 내려졌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일 범정부 차원의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자 전남도 역시 기존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 협업 부서장들과의 대책회의를 갖고, 축산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도민안전실이 방역대책, 인체감염 대책, 매물 관련 환경 정비, 자원봉사 지원, 교통 대책 등 여러 협업부서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형수술 왜 떠벌려”...화기애애 술자리 순식간에 난장판



올려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다 대화 주제가 성형수술과 외모로 바뀌면서 한판의 소동이 발생.

○~1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옷가게를 운영하는 A(33)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광주시 상무지구 한 포장 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24)씨가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자 치솟는 화를 이겨

내지 못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뜨거운 바지락탕을 B씨의 어깨 부위에 끼얹었다는 것.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B씨)과는 친한 사이지만 자주 내 외모를 지적하면서 ‘언니 눈도 성형했지?’, ‘눈도 성형한 거 맞네’ ‘코도 한 거지?’라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성형 사실을 떠벌리자 분을 참기 힘들었다”고 당부를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토지, 6256평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1번지 외 6필지
- 토지 6256평 / 계획관리지역
- 매매 - 16억
- 건물 256평, 현재 양어장 운영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감정/시세 - 15억
- 대출 - 8억 (4.65%)
- 매매 - 협의
- 동업 - 운영하실 분
- 법인체 인수 가능
- 직매 H. 010-3605-5000